

# 소상공인 업체 5000개 늘었지만 종사자 수는 6만 4000명 줄었다

통계청 '2020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코로나 한파에 생계형 창업 급증

광주·전남 각각 3.8%·2.3% 늘어

광주 종사자 감소율 전국 최고

임차 소상공인 비중 크게 높아져

코로나19로 인한 불황으로 지난해 생계형 창업이 광주·전남에서 5000곳 늘었지만, 소상공인은 6만4000명 급감했다.

경기침체를 극복하려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곳곳에서 벌어졌지만 광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무보증부 월세는 50% 경중 뒤편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역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광주 8만5000개·전남 11만개 등 19만5000개로 집계됐다.

광주 소상공인 사업체는 지난 2019년 8만2000개에서 이듬해 8만5000개로, 3.8%(3000개) 증가했다. 전남은 10만8000개에서 11만개로, 2.3%

(2000개) 늘었다.

전국 사업체 290만2000개 중에서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광주는 2.9%, 전남은 3.8% 정도였다.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 증가율은 4.7%로, 두 지역 증가율(광주 3.8%·전남 2.3%) 모두 평균을 밑돌았다.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산업별로 매출액이 10억원에서 120억원 이하이거나,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제조업·건설업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인 사업체를 말한다.

사업체 수는 늘었지만 지난해 광주·전남 소상공인 종사자는 무려 6만4000명 사라졌다. 특히 광주 종사자 감소율은 전국에서 가장 컸다.

지난해 광주 종사자는 15만9000명으로, 전년(18만8000명) 보다 15.8%(3만명) 급감했다. 전남은 23만8000명에서 20만4000명으로, 14.5%(-3만4000명) 감소했다.

전국 소상공인 종사자는 지난해 557만3000명으로, 전년(644만3000명)보다 13.5%(-87만1000명) 줄었다.

편리한 매출사정에 광주 소상공인들은 일 년 동안 사업장을 소유한 비율이 20% 아래로 주저앉았다. 소상공인 가운데 지난해 사업장을 소유한 비중

은 광주 19.9%, 전남 30.5%로 나타났다.

전년(광주 21.8%·전남 35.5%)에 비해서는 각각 1.9%포인트, 5.0%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그만큼 임차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비중은 늘었다. 이 가운데 전세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비중은 광주의 경우 3.3%에서 2.8%로, 0.5%포인트 감소했다. 전남 전세 비중은 4.5%로 전년과 같았다.

지역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사업장 임차 보증금은 광주 2015만원·전남 1994만원으로, 전년보다 광주는 2.3%(-47만원) 내리고 전남은 1.4%(27만원) 올랐다.

광주 월세는 112만원에서 106만원으로, 5.4%(-6만원) 하락했고, 전남은 87만원에서 90만원으로 3.4%(3만원) 상승했다.

광주 무보증부 월세는 2019년 71만원에서 다음해 107만원으로, 무려 50.7%(36만원) 뛰었다. 정부가 지난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개사를 대상으로 지급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00만원) 수준을 월세로 내고 있는 것이다. 전남 무보증 월세는 53만원에서 45만원으로, 15.1%(-8만원) 내렸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광주은행 임원 인사·조직 개편...“미래 성장동력 강화”

부행장보 4명 내부 발탁 선임

디지털부 확충·해외 지원팀 신설

광주은행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임원인사와 조직개편을 28일 단행했다.

디지털 금융 담당 부서를 강화하고 해외사업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미래수익 기반 확충에 공들인 점이 눈에 띈다.

광주은행은 이날 임원급 부행장보 4명을 내부 발탁해 선임하는 임원인사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존 부행장보 2명은 퇴임하고, 영규승(55) 현 하남공단1금융센터장, 이강현(55) 서울 영업부장, 조정민(54) 디지털사업부장, 정창주(54) JB금융지주 미래전략부장이 신입 부행장보에 선임됐다.

광주은행은 이번 인사에 대해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점점 커지는 금융환경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조직의 안정과 영업력 확대를 꾀했



영규승 부행장

이강현 부행장

조정민 부행장

정창주 부행장

원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본부도 새로 설치하며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에 힘쓴다.

한편 부점장인사에서는 상대적으로 젊은 3급 신입 부점

장 20명을 배치했다. 여성 부점장은 6명 임명했다. 송종욱 은행장은 더욱 치열해진 영업환경에 맞서 젊고 유능하며 디지털금융 혁신 의지를 갖춘 인물을 위주의 세대교체를 추구했다. 그는 "업무능력과 열정, 그리고 대내외 평판을 모두 감안했고 무엇보다 광주은행의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고객중심 지역대표은행으로 만들어 갈 적임자를 신입 임원으로 발탁했다"며 "각 임원의 장점을 충분히 살려 적재적소 배치를 통해 조직 효율성을 극대화했다"고 말했다.

28일 광주테크노파크에 따르면 내년 10개 사업에 총 3849억원 규모의 국비사업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 현재 기준 국회에 반영된 예산은 7개 사업 1559억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에너지 지식산업센터(364억원) ▲저탄소 고부가 전국 재제조 혁신기술개발(300억원) ▲케이-헬스(K-health) 국민의료 인공지능(AI)서비스 데이터생태계 구축(230억원) ▲배터리 팩·모듈 성능-안전성 시험평가센터 구축(220억원) ▲인공지능반도체 상용화 테스트베드 구축(190억원) ▲키타더 연계 K-의료기기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155억원) ▲폐배터리 안전화 센터 구축(100억원)이다.

이밖에 추가 예산 확보가 예상되는 사업은 3개 2290억원이다. ▲공기정화환기시스템 고도화 기술개발 에타사업(1950억원) ▲펜타이드 공정기술 실증 센터 구축(140억원) ▲네트워크 메이커 팩토리(200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국비사업 유지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내부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해 총 15건의 과제를 발굴, 이 중 5건의 우수과제를 우선 선정해

케이팝 열풍에 광주·전남 전자상거래 수출 3배 늘어

케이팝(K-pop) 관련 물품 수출에 힘입어 광주·전남지역 전자상거래 수출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본부세관이 지난 27일 발표한 '광주·전남지

역 전자상거래 수출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 11월 누계 기준 광주·전남 전자상거래 수출은 306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26.7% 급증했다.

광주는 주로 화장품이 수출을 견인했으며 전남은

케이팝 관련 물품 수출이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는 73만7000여 달러, 전남은 232만6000여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배와 4.3배 늘었다.

케이팝 관련 수출은 주로 글로벌 오픈마켓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자사 홈페이지를 통한 판매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기용 기자 pboxer@



## 효성, 장애예술가와 아름다운 동행

'올해의 작가' 홍세진 작가 선정

효성은 서울문화재단 잠실창작스튜디오와 함께 '2021 효성과 함께하는 올해의 작가'로 홍세진 작가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 '올해의 작가'는 서울문화재단이 잠실창작스튜디오 레지던시 입주 작가 중 탁월한 작품성을 선보인 예술가 1인을 공모해 선정하며, 선정자에게는 5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올해 수상자인 홍 작가의 회화 작품은 공간, 사물 등 인공물의 선, 도형 등 추상 요소를 가시화해 '온전성에서 비껴서 있는 낯설'을 담아냈다. 심의위원단은 "작품세계에 대한 시각 언어가 확실하게 드러났고, 작업의 완성도가 높다"

고 평가했다.

효성은 2018년부터 장애예술의 가치를 확산하고, 장애인 예술가들이 '배리어프리'(Barrier Free) 한 작품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효성은 서울문화재단의 장애예술인 창작 레지던시인 '잠실창작스튜디오'와 손잡고, 입주작가 지원프로그램인 '굿모닝 스튜디오'에 연 1억원을 후원하고 있다.

또 효성은 지난 27일 서울남부보훈지청을 방문해 저소득 국가유공자 125가구에 침구세트를 기부했다. 이번 기부 물품은 효성이 지난 3일 국가보훈처에서 받은 보훈문화상품 1000만원으로 마련됐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광주테크노파크 내년 국비 3849억원 확보

광주테크노파크가 내년 3800억원 이상의 국비 사업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광주테크노파크에 따르면 내년 10개 사업에 총 3849억원 규모의 국비사업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 현재 기준 국회에 반영된 예산은 7개 사업 1559억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에너지 지식산업센터(364억원) ▲저탄소 고부가 전국 재제조 혁신기술개발(300억원) ▲케이-헬스(K-health) 국민의료 인공지능(AI)서비스 데이터생태계 구축(230억원) ▲배터리 팩·모듈 성능-안전성 시험평가센터 구축(220억원) ▲인공지능반도체 상용화 테스트베드 구축(190억원) ▲키타더 연계 K-의료기기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155억원) ▲폐배터리 안전화 센터 구축(100억원)이다.

이밖에 추가 예산 확보가 예상되는 사업은 3개 2290억원이다. ▲공기정화환기시스템 고도화 기술개발 에타사업(1950억원) ▲펜타이드 공정기술 실증 센터 구축(140억원) ▲네트워크 메이커 팩토리(200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국비사업 유지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내부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해 총 15건의 과제를 발굴, 이 중 5건의 우수과제를 우선 선정해

지역 내외 산·학·연·관 전문가들과 위원회를 운영한 뒤 구체화할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의 약 3배 수준이다. 앞서 광주테크노파크는 2016년부터 3년간 평균 약 400억원 규모의 국비사업을 유치해왔다. 이후 2019년 829억원을 기록한 이후 2020년 1323억원, 2021년 1372억원 등 매년 최대 실적을 갱신 중이다.

김진민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은 "3년 연속 국비 예산 대거 확보로 지역 주력산업의 성장발판을 마련했다"며 "광주가 미래산업 불모지라는 꼬리표를 떼고 AI와 에너지, 친환경자동차, 헬스케어산업 육성 등 미래산업 중심도시로 부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코스피	3020.24 (+20.69)
코스닥	1027.44 (+16.08)
금리(국고채 3년)	1.786 (+0.010)
환율(USD)	1188.00 (+1.20)

**돈돈한 지키자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